3년만의 나란다축제, 어린이 불심 활짝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17일 동국대서 개최

'범종을울려라' 150여 어린이 참여
K댄스, 어린이관현악 무대 등 마련
16일 상월선원 안거 체험도 눈길
1500여명 축제 현장 참여해 활동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에 참여한 불자 어린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최대 청소년 문화축제인 '나란다축제'가 3년 만에 대면행사로 동국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500여 어린이 청소년들은 모처럼 마련된 불교계 축제 현장에서 교리경시대회를 비롯해 드론 로봇 VR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9월 17일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제14회 나란다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나란다축제는 오전 10시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체험'으로 시작됐다.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팔정도 광장을 시작으로 운동장을 돌며 묵언 행선을 진행했다. 이번 행선에 앞서 사전신청한 학생 20여 명은 16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입재식을 갖고 운동장에서 수행텐트를 치고 절식과 묵언수행을 하루 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순례 후 축제 참가자들은 동국대 학림관으로 이동해 교리경시대회를 이어갔다. 이번 교리경시대회에는 중학생 450명과 고등학생 560명이 참여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1시 진행된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퀴즈대회에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서울지역 사찰 어린이법회 아이들과 종립 초등학교 학생 150여 명이 참석했다.

3년 만에 모인 아이들의 모습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정충래 동국대 이사(나란다축제 기획위원) 등이 현장을 찾아 응원했다.

퀴즈대회가 열린 팔정도 광장을 중심으로 전통문화한마당 체험부스와 먹거리부스도 마련됐다. '드림캣쳐 나만의 보석 만들기' '드론날리기 프로그래밍 체험' '로봇축구 체험' 'VR명상 체험' 등 30여 가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목초등학교 정해림 학생은 "퀴즈대회 참가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전통문화 체험부스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며 "키링 만들기를 비롯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퀴즈대회 이후 동국대 법학만해관에서는 금나나 · 황순일 · 유충렬 교수의 진학 · 진로 상담 및 강연도 진행됐다.

나란다축제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활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줘 감사하다. 국가와 불교를 위한 미래 동량으로 자라나주길 바란다"며 "현대사회 필요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하고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보 · 보물 괘불도, 안방서 감상해볼까

국립문화재연구원, 고화질 사진 서비스 개시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에
주요 괘불 47점 사진 공개
'6000만 화소' 고화질 자료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

국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부터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까지 한국의 주요 괘불탱을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국보 · 보물로 지정된 괘불도 47점의 고화질 사진을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내 '한국의 괘불 갤러리'에서 공개한다"고 9월 18일 밝혔다.

괘불탱은 야외에서 거행되는 영산재(靈山齋), 천도재(薦度齋) 등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대형 불화로,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대형 화폭에 그린 것으로 대부분 높이 10m가 넘는다.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 정교한 묘사가 특징인 괘불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괘불도 고화질 사진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원, (사)성보문화재연구원이 함께 추진중인 '대형불화(괘불도) 정밀조사 사업(2015~2024년)'을 위해 촬영한 것이다. 국보 · 보물로 지정된 괘불도 전체 62점 중 조사가 완료된 '죽림사 세존 괘불탱' 등 총 47점(국보 6건, 보물 41건)의 고화질 사진이 최초 공개된다.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의 '한국의 괘불 갤러리'에서 공개되는 사진들은 최소 3000만 화소에서 최대 6000만 화소의 고화질 자료로, 그동안 가까이 보기 힘들었던 조선시대 화승들의 정교한 필치와 섬세하게 그려놓은 아름다운 문양 표현들을 세밀하게 확대하여 자세하게 감상할 수 있다. 다만, 괘불의 사진을 내려받을 수는 없다.

불화 연구자들을 위해 괘불도의 조성 기록인 화기(畵記) 정보를 함께 수록했다.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문화재청의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일정에 따라 이번에 1차로 공개된 47점 이외에 나머지 15점의 고화질 사진도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양이로 표현한 부처님, 지켜봐주세요"

불교크리에이터 3기 만나다

③ '부다캣' 인스타툰 이현희



불교크리에이터 3기로 선정된 이현희 씨<사진>는 현재 '부다캣'이라는 캐릭터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부다캣은 고양이님을 위해 간식을 바치고 장난감으로 놀아드리는 것이 마치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돼 만들어진 캐릭터다.

이현희 씨가 수많은 고양이 캐릭터 중에 '부처님'을 주제로 고양이 캐릭터를 만든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반려동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콘텐츠 사업체인 '투텅스'를 설립한 이후 이 씨는 불교논문을 찾아보다 고양이에게 밥과 간식을 주는 자신의 모습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본래 콘텐츠인 부다캣 아트토이는 다양한 불상의 형태와 의미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인스타툰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 씨는 "부다캣을 홍보하고 있는 주요 SNS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라며 "예전부터 인스타툰 활동을 하고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실 부다캣은 종교적 색채를 바로 드러내기에 타종교인 혹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건이다.

이 씨는 "불상의 자세에는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다. 수인과 각 자세가 가진 의미를 고양이를 위한 마음과 접목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끝으로 "이번 불교크리에이터 선정을 통해 부다캣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현재 부다캣뿐만 아닌 새로운 콘텐츠도 기획하고 있다. 부다캣의 발전을 계기로 캐릭터 콘텐츠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김소유 가수 홍보대사 위촉

9월 20일, 일면 스님 위촉장 수여
BBS '백팔가요' 출연진 기부금도



트로트 가수 김소유 씨가 불교계 대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20일 본부 회의실에서 가수 김소유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인기 트로트 가수인 김소유 씨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했다. 스님은 "김소유 씨가 가진 폭발적인 성량과 에너지가 생명나눔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홍보대사의 한 마디, 한 마디가 한 생명을 살린다는 자긍심을 갖고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유 씨는 "생명나눔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라면서 "우리사회 생명존중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위촉된 김소유 씨는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펼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생명나눔 운동 등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 동참, 생명나눔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백팔가요' DJ로도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소유 씨는 2018년 미니앨범 '초생달'로 데뷔했다. TV조선에서 주최하는 트로트 서바이벌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9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당동 떡집 딸'로 불리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위촉식 후에는 홍보대사들이 소아암 · 백혈병 환자를 위한 기부금을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백팔가요' DJ이자 고정출연자인 김소유, 권미희, 배아현 홍보대사는 금일봉을 일면 스님에게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